

# 美 등 SMR 차세대 에너지원 주목 K기업, 글로벌 '핵심 공급자' 도전

SMR 기술 개발 등 시장 선점 나서  
두산에너지·미주 주요 개발사 협업  
HD현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 박차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소형 원전(SMR)이 주목받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원전 건설 기술과 공급망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SMR 시장은 지난 2022년 57억달러(약 8조 3000억원)에서 2030년 68억달러(약 9조 9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300MW(메가와트) 이하의 전기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미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SMR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글로벌 SMR 관련 시장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AI 분야에 5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점도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SMR 시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SMR이 신규 발전 설비로 처음 포함되면서 국내 구축을



미국 와이오밍주 테라파워 SMR 발전소 조감도.

/두산에너지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SMR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핵심 공급자로 자리잡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케일과, 테라파워 등 미국 주요 SMR 개발사들과 협업을 확대해 원자로 모듈 및 주기기 제작 역량을 선보이며 입지를 넓히는 중이다. 현재 두산에너지는 SMR 초도호기 제작을 위한 설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지난 2024년 4월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창원공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HD현대 또한 계열사들과 함께 미국 내 SMR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HD한국조선해양은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

를 투자하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HD현대 테라파워, 서던컴퍼니, 영국의 코어파워와 함께 미국 워싱턴주 현지에서 응용원자로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며 상업화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SMR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과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다만 국가별 규제 차이가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 기준이 속히 마련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삼성전기, AI·전장 신사업 예고

주총서 기존 경영진 유지 전망  
미래 성장 전략 고도화 여부 주목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재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올해 1월 발표한 'Mi-RAE(미래)' 신사업 전략에 따라 인공지능(AI), 전장(자동차 전자장비), 확장현실(XR)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관 등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10조 2941억 원의 매출과 73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 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 시장 변화에 맞춰 주력 제품인 MLCC와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공급을 정보 기술(IT) 기기에서 AI·전장·XR 부문으로 확대했다. 장덕현 사장은 2023년 주총에서 "삼성전기는 앞으로 자동차 부품회사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전장 부품 중심의 사업 재편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주총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 S25 효과와 MLCC 가동률 개선

으로 삼성전기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6% 증가한 97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MLCC와 반도체 기관 부분의 호조가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기의 주요 사업 부문은 ▲컴포넌트(MLCC) ▲패키지솔루션(반도체 기관) ▲광학솔루션(카메라 모듈)로 구성된다. 컴포넌트 부문에서는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MLCC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에서는 FC-BGA 공급 확대와 베트남 공장 가동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선다. 광학솔루션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테슬라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사업에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장덕현 사장 외에도 김성진 경영지원실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환경 전문 변호사인 이윤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외이사 재선임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모비스, 자체 설계 차량용반도체 본격 생산

전원통합칩·램프구동 반도체 등 양산

현대모비스가 자체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 양산 성공 사례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20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지 5년만이다.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한 제어기와 핵심 부품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전동화와 전장, 램프 등 핵심부품용 반도체 연구개발과 신뢰성 검증을 마치고 양산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양산하는 주요 반도체로는 전기차의 전원 제어기능을 합친 전원통합칩과 램프구동 반도체 등이다. 이미 공급 중인 배터리관리집적회로(IC)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산업의 전

장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난 수년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양산 중인 차량에 많게는 3000여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현대오트론 인수 이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며 전력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두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연구개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전력반도체 설계 내재화를 통해 전동화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구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반도체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전력반도체 여러 개를 통합하고 냉각기능을 추가해 더 큰 단위인 '파워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력반도체·파워모듈-인버터-모터-PE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구동계의 모든 진동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전력반도체가 성능과 원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내재화하면 차세대 구동시스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중장기 반도체 연구개발 전략에 따라 내년에는 실리콘 기반 고전력 반도체(Si-IGBT)를, 오는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차세대 배터리관리 IC와 실리콘카바이드 기반 전력반도체(SiC-MOSFET)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박철홍 반도체사업담당 전무는 "실리콘밸리 연구거점 시설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 구축하고 해외 주요 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사례를 늘릴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동화와 전장부품용 핵심반도체 독자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 삼성전자, 내달 7일 '원 UI 7' 업데이트

고도화된 '갤럭시 AI'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원 UI(사용자 환경) 7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사용자가 새롭게 디자인된 UX(사용자 경험)와 고도화된 '갤럭시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18일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등 주요 모델을 대상으로 원 UI 7 업데이트를 다음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UI 7'은 심플해진 UI 디자인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몰입도 높은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휴화면과 원 UI 위젯, 앱과 잠금 화면 등에

개인화 옵션을 확대 적용해 사용자가 모든 요소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원 UI 7'은 ▲ 글쓰기 어시스트 ▲ 오디오 지우개 ▲ 그리기 어시스트 등 한층 강력하게 진화한 '갤럭시 AI' 기능을 제공한다.

설정 또한 간편해졌다. 설정 앱에 들어가 상단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눈이 피곤하다'고 텍스트로 입력하거나 말을 하면 디스플레이 설정상 '밝기 최적화' 등 알맞은 추천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원 UI 7 업데이트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남영 기자

# 삼성전자, 유럽서 AI TV 신기술 소개

유럽 테크 세미나 개최

삼성전자가 18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년형 TV의 차별화된 기술과 AI TV 신기술을 소개하는 '2025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테크 세미나는 2012년부터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영상·음향 분야의 미디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 TV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로, 업계 관계자들이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올해 테크 세미나에서는 2025년형

Neo QLED·OLED·라이프스타일 TV 뿐만 아니라 AI 기반 시청 경험 및 사운드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구글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적용한 '이클립스 오디오' 기술을 선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지역에서도 테크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LG전자 '트롬 AI 워시타워' 출시

LG전자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적용해 사용은 편리해지고 옷감 손상은 줄었다.

이번 신제품은 건조 용량을 국내 최대인 25kg으로 세탁·건조 용량이 같아져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거



LG전자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접목해 출시한 'LG 트롬 AI 워시타워' 이미지. /LG전자

울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도 건조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